

東岡 金宇顙의 현실인식과 經世論

이 경 동*

- I. 서론
- II. 선조대 경세론의 전개와 김우옹의 현실인식
- III. 경세론의 구조와 내용
 - 1. 정치체제론
 - 2. 안민론
 - 3. 교민론
- IV. 경세론의 특징과 의의 : 이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V.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는 16세기 영남지역의 대표적인 학자-관료였던 동강 김우옹의 경세론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시대적 의미를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김우옹은 ‘更張’·‘更新’이라는 용어를 통해 선조에게 時宜에 입각한 변통론을 제시했다. 김우옹의 경세론은 ‘先修己-後治人’을 바탕으로 군주의 修身에 입각하여 관료와 백성에게까지 파급되는 구조를 띠었다. 정치체제로는 대신이 주도하는 국정운행을 지향하면서 천거제, 지방제도 개편안 등을 제시하였다. 안민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軍政과 관련하여 실액에 부합한 군역 자원의 확보와 대립가포를 통한 선상제 운영을

* 고려대학교 BK21Plus한국사학미래인재양성사업단 연구교수 / geistlkd@korea.ac.kr

통해 당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교민론과 관련하여 김우옹은 특히 관학 교육에 집중하여 성균관과 향교의 교관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료예비군을 양성하고자 했다. 향약에 있어서는 ‘先修己-後治人’의 입장에 따라 제도보다는 군주의 마음가짐을 강조하였다. 김우옹의 경세론은 선조초 관료로 활동했던 이이의 경세론과 비교할 수 있는데, 군정개혁안이나 선상제, 교육, 향약 등에서의 유사성이 나타나며 공안개정을 중심으로 제도적 방법에 중심을 두었던 이이와 달리 수기를 중시한 김우옹 경세론의 학문적 특성을 볼 수 있다. 김우옹을 단순히 경연관이나 성리학자로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16세기 후반에 관료로 활동하면서 시대현실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구상한 경세론을 제출한 인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金宇顥, 李珥, 宣祖, 更張, 經世論

I. 서론

東岡 金宇顒(1540-1603)은 16세기 후반 활동했던 영남 지역의 대표적인 학자-관료이다. 정치적으로 김우옹은 東人에 속해 있었지만, 정치 운영에서 중립을 지키고자 노력했으며 동서분당이 본격화된 재미삼찬 이후에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동인과 서인을 調劑하고자 했다. 김우옹은 南冥 曹植(1501-1572)의 外孫婿면서도 성리설과 관련하여 退溪 李滉(1501-1570)과 학문 교류를 통해 영남지역을 대표하는 성리학자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조식은 김우옹에게 金鈴을 내려 격려할 만큼 학문적으로 김우옹에 대한 기대가 특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기존 연구를 통해 김우옹의 학문과 사상적 특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밝혀진 바 있다.²⁾ 김우옹은 ‘敬’을 중시하는 학문적 경향을 보였으며, 성리설에서 ‘敬’을 토대로 한 그의 학문관과 현실관에 대한 검토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김우옹이 관료로 활동했던 시기는 동서분당으로 정국이 전개되고 있던 시점이기 때문에 봉당관에 대한 연구에서 이이·정인홍 등 동시기 인물들과의 차이점을 다루기도 했다.³⁾ 김우옹의 經世論 혹은 改革論과 관련한 연구를 통해 김우옹이 인식한 경장·경세론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다.⁴⁾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김우옹의 생애와

1) 『東岡先生年譜別本』 癸亥年條. “冬受學于南冥曹先生門……曹先生居常佩一金鈴號曰惺惺子 至是卽解以贈先生曰……固是抑此意甚切 不止於佩玉也 予可見其初際付援之重也”

2) 김우옹의 사상을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金光淳, 「東岡의 生涯와 思想的 志向」, 『東方學志』 36-37, 1983 ; 權仁浩, 「東岡 金宇顒의 學問과 思想研究」, 『南冥學研究論叢』 2, 1991 ; 韓相奎, 「金東岡의 教育思想」, 『남명학연구』 6, 1997 ; 金洪永, 「東岡 金宇顒의 讀書論과 學問的 志向」, 『남명학연구』 6, 1997 ; 鄭羽洛, 「金宇顒의 經典理解方法과 그 『聖學六箴』의 意味構造」, 『동방한문학』 16, 1999 ; 鄭羽洛, 「金宇顒의 事物認識方法과 그 정신구조의 特性」, 『한국사상과 문화』 7, 2000 ; 李相夏, 「東岡 金宇顒의 出處와 학문」, 『남명학연구』 11, 2001 ; 宋準滉, 「東岡 金宇顒의 帝王教育論」, 『남명학연구논총』 10, 2002 ; 蔡輝鈞, 「東岡 金宇顒 『天君傳』의 교육적 의미」, 『남명학연구논총』 12, 2003 ; 이영호, 「東岡 金宇顒의 朱子學 수용 양상」, 『남명학연구』 24, 2007.

3) 薛錫圭, 「東岡 金宇顒의 政治哲學과 朋黨論의 展開」, 『남명학연구논총』 7, 1999.

사상, 그리고 시대적인 위상과 평가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되었다.

김우옹과 관련한 연구는 경세론 보다는 성리설을 중심으로 정치적 활동 등에 대한 점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는 김우옹이 經筵官으로서 활동하였으며, <天君傳>·<聖學六箴>·『續資治通鑑綱目』 등의 학문적 업적을 축적했던 것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김우옹은 선조대 전반 栗谷 李珥(1536-1584)와 함께 활동하며 경연 등에서 개혁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이조·병조·관찰사 등을 역임하면서 국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東岡集』에 수록된 <經筵講義>를 비롯하여 김우옹이 작성했던 疏劄에는 경세론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김우옹을 단순히 경연의 講官으로만 이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의 경세론은 이황·조식 등 영남계열 선배들과 함께 유성룡·김성일 등 동시기 관료들의 경세론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김우옹의 현실관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조정 내에서 그가 주장했던 견해들을 구조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가지는 시대적 의미를 조망하고자 한다. 본고의 서술을 위해 『東岡集』을 중심으로 『宣祖實錄』·『宣祖修正實錄』 등 연대기 사료와 『栗谷全書』 등 동시기 인물들의 문집을 활용하였다.

II. 선조대 경세론의 전개와 김우옹의 현실인식

16세기 조선은 다양한 변화의 양상이 나타났던 시점이었다. 정치적으로 士林이 勳舊와 대립하면서 士禍가 발생하였으며, 사상적으로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면서 향촌사회를 중심으로 서원이 건립되고 향약이 보급되었다.⁵⁾ 다른 한편 이른바 ‘『經國大典』 체제’가 사회현실과 일

4) 이석규, 「동강 김우옹의 군주 중심의 경세론」, 『退溪學과 儒敎文化』 57, 2015 ; ____ , 「동강 김우옹의 민본사상」, 『동아시아문화연구』 67, 2016.

5) 李泰鎭, 「士林派의 鄉約普及運動: 16세기의 經濟變動과 관련하여」, 『韓國文化』 4, 19

치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不産貢物이나 引納 등으로 인해 공납제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⁶⁾ 군정과 관련해서는 군액이 실액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와 군역의 부세화·납포화 현상들이 만연하였다.⁷⁾

16세기 전반 조정에서는 국정운영에 대한 방법론으로 君主聖學論을 제시하였다.⁸⁾ 성리학적 경세론에서 군주의 수양을 중심으로 한 ‘修己’는 이상국가 실현을 위한 일차적인 전제로 제시되었으며, 국가 경영의 방법론을 제시한 ‘治人’은 ‘수기’의 다음 단계로 인식되었다.⁹⁾ 따라서 군주는 經筵을 통해 자신의 君德을 향상시켜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이러한 점은 16세기 초반 조광조 등 기묘사림으로 대표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으며, 이후 성학론의 기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김우옹이 입사했던 선조대 초반은 명종대까지 지속된 훈척정치가 몰락하고 새로운 정치질서가 모색되던 시기였다. 특히 당면한 현실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新進士類와 현 체제의 유지를 지향하는 舊臣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문소전에 명종을 배향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과 같은 정통성에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낭천제나 공안개정과 같은 제도적 차원에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¹⁰⁾ 이러한 현실에서 김우옹은 당시의 개혁론에 대한 조정의 견해 차이를 다음과

83, 1~38쪽; 韓相權, 「16-17세기 鄉約의 機構와 性格」, 『震檀學報』 58, 17~68쪽; 鄭萬祚,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139~141쪽.

6) 高錫珪, 「16-17세기 貢納制 개혁의 방향」, 『韓國史論』 12, 1985, 173~230쪽; 박현순, 「16~17세기 貢納制 운영의 변화」, 『韓國史論』 38, 1997, 1~49쪽.

7) 李泰鎮, 「軍役의 變質과 納布制 實施」, 『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期篇』, 육군본부, 1968, 234~253쪽; 김성우,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119~121쪽.

8) 정재훈, 『조선전기 유교 정치사상 연구』, 태학사, 2005, 296~374쪽.

9) 성리학에서 修己와 經世의 관계에 대해서는 박경환, 「修己와 經世의 문제로 본 주자학의 사상사적 의의」, 『哲學研究』 92, 2004, 163~184쪽 참조.

10) 선조대 초반 개혁논의를 둘러싼 舊臣과 新進士類와의 갈등 양상은 金恒洙, 「宣祖初年の 新舊葛藤과 政局動向」, 『국사관논총』 34, 1992, 93~114쪽; 김정신, 「宣祖代 文昭殿 論爭과 朋黨」, 『韓國思想史學』 22, 115~166쪽; 김경래, 「宣祖대 초반의 정국과 栗谷 李珣의 개혁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68~69쪽 참조.

같이 인식했다.

오늘날 사대부의 의논이 대개 두 가지가 있으니 구습을 따르기 즐거워하는 이는 “삼가 옛 規例만 지키면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법을 세우면 그에 따르는 폐단이 생겨나니 다시 고칠 것이 없다.”고 하고, 분발하여 떨치기를 생각하는 이는 “事功을 떨쳐 일으켜 폐단을 잘라 내고 정사를 세우기를 마땅히 불에서 구하고 물에서 건지듯 해야지 조금이라도 늦출 수 없다.”고 합니다. 무릇 이 두 가지 주장이 또한 각기 견해가 있으나 신등의 뜻은 이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대개 구습을 따르기 즐기는 이는 淺俗의 견해에 빠져 의리의 합당함을 구하지 않고 민생과 국사의 위태로움을 앉아서 보기만 하고 일상에 안주하여 그른 것에 익숙한 묵은 태도를 구태여 고집하니 크게 국가의 이로움이 아닙니다. 분발하여 떨치기를 생각하는 이는 기울고 무너진 것을 오래 두어서는 불가하고 기강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너무 급급히 이를 구할 것을 도모하니 이는 그 주장이 진실로 바르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신 등은 적이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사업은 요행으로 이룰 수 없고 정사는 반드시 자기를 닦는 것에서 먼저 해야만 할 것입니다.…(후략)…¹¹⁾

김우옹은 당시의 개혁안에 대한 찬반 논의를 規例를 준수하려는 보수적인 입장과 변혁을 원하는 개혁적인 입장으로 이원화했다. 이에 대해 김우옹은 두 입장에 대해 유보적인 관점을 취하면서, 개혁안에는 찬성하지만 무리한 추진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한편 修身이 전제된 방향의 事業을 추진해야 함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성리학에서 이해하는 ‘修己治人’의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구습을 따르지는 않지만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김우옹은 강관으로 경연에 입시하면서 연석에서 직접적으로 更張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표적인 견해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a) 주상의 뜻이 오로지 전례만 따르고자 하여 조금이라도 제도를 변혁하려 하면 문득 분란이 일어날까 염려하니 이와 같다면 비록 어진이가 있다 하더라도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뜻을 세움은 모름지기 높고 크게 하고 **학문을 하고 정치**를 함에는 모두 **흡족하고 극진한 곳에 이르기**를 구하며 **일에 변통해야 할 곳**이

11) 『東岡集』 卷6, 筭, <玉堂筭(癸酉十月正字時)>.

있으면 更新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 연후에 어진 인재가 다투어 보필하여 일을 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¹²⁾

- (b) 신 등이 가만히 보아하니, 전하께서는 오직 이미 이루어진 법[成憲]만 삼가 지키고자 하여 혁신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시니 이는 그 本意가 진실로 아름답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나치게 이 뜻만 고집한 나머지 목은 자취에만 굳게 막혀서 감히 일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법령이 오래되면 폐단이 불어나서 백성들이 그 피해를 입는데도 오히려 변통해야만 하는 時宜를 알지 못한다면 이는 선왕의 뜻을 계승하고 일을 발전시키는 훌륭한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의 집에 비유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아버지가 목은 밭을 일구어 농음에 그 아들이 파종하여 수확하고 그 아버지가 室을 폐함에 그 아들이 堂을 짓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바로 선대의 뜻을 잇는 것입니다. 만약 先人의 室을 지키되 세월이 깊고 오래되어 풍우가 범람하여 기둥과 서까래가 썩고 상하며 담장이 기울어 무너졌는데도 고치고 수리할 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나는 선인의 규모만 지킬 따름이다’라고 한다면 아마 점차 무너져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직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도리어 선대의 일을 무너뜨림이 있을 것이니 오늘날 국가의 일이 어찌 이와 다르겠습니까? 또한 신 등의 뜻은 전하께서 祖宗의 規約을 모두 취해다가 어지러이 고치시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時宜에 맞도록 고쳐서 변통함으로써 前烈을 빛내고자 하는 것일 뿐인데 이룬 것을 지키기에 무슨 방해가 된다고 전하께서 어렵게 여기십니까?¹³⁾

- (c) 진강을 마치고 鄭惟一이 “祖宗의 법은 진실로 준수할 것이나 또한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고, 또 “변혁하는 것은 진실로 어려운 일이니 朱子가 ‘宋 太祖가 五代의 정사를 따르고 변혁하지 않은 것은 훌륭한 수단[作者手段]이다’라고 말했습니다.”하자 선생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주자가 말한 것은 아마 덜만한 것은 덜고 더할만한 것은 더한 나머지 인정에 따를 만 한 것은 그대로 따른다는 말이지 마땅히 그 폐습까지 그대로 따른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송 태조의 일일 따름이고, 만약 夏殷周 三代의 제왕이 이러한 때를 만났다면 다만 이와 같은 데에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¹⁴⁾

12) 『東岡集』 卷11, <經筵講義> 癸酉 12月 2日條.

13) 『東岡先生年譜別本』 甲戌 正月條.

14) 『東岡先生年譜別本』 甲戌 正月 25日條.

위 세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김우옹은 경장·변통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군주인 선조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更新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하지만(a), 그 방식에 있어서 朝宗의 規約을 난삽하게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時宜라고 명명한 현 시점의 법령 등에서 적절한 방식을 채택하여 선왕의 뜻을 계승하는 것임을 밝혔다(b). 또한 祖宗之法을 준수하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三代之 제왕들이 현 시점에 있었다라면 경장·변통의 입장을 취했을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면서 폐습의 고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관점을 보였다(c).

한편 김우옹은 경장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우옹은 장횡거의 ‘구습에 얽매어 벗어나지 못하면 끝내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구습을 안락하게 여길 뿐이다’는 견해를 근거로 경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으며,¹⁵⁾ “선조 스스로 更新을 꺼리지 않아야 賢才가 보필하여 일을 성취시킬 수 있다”고 하며 경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¹⁶⁾ 김우옹은 현 시점에 경장이 시급하며, 이에 대한 선조의 의지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경장에 대한 김우옹의 시각은 선조대 초반 경장론·경세론을 주도했던 이이의 견해와 유사하다. 이이 또한 <동호문답>에서 개혁의 지향점으로 三代를 설정했고, 國朝의 사례로서 世宗·成宗代의 治世를 강조했지만, 그것은 과거로의 복귀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이의 경장은 그 방식을 과거로 회귀가 아니라, 현시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을 의미했다.¹⁷⁾ 이러한 이이의 견해는 <만언봉사>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三代를 비롯한 중국에서 전개된 변통의 역사를 개관함과 동시에 國朝에서 『經濟六典』에서부터 시작하여 『經國大典』으로 마무리되었던 법제의 변천사를 언급하며 현시점에서 변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15) 『宣祖實錄』卷7, 6년 12월 1일(丁未).

16) 『宣祖實錄』卷7, 6년 12월 2일(戊申).

17) 이이 경장론에 대한 이론적 검토는 尹絲淳, 「栗谷思想의 實學的 性格(上)」, 『韓國思想』 11, 1974, 160~189쪽; 尹絲淳, 「栗谷思想의 實學的 性格(上)」, 『韓國思想』 13, 1975, 195~213쪽; 李先敏, 「李珥의 更張論」, 『韓國史論』 18, 1988, 223~267쪽 참조.

다.¹⁸⁾ 이이는 변통해서는 안 될 요소로 王道, 仁政, 三綱, 五常을 거론하고, 제도·법제를 변통의 대상으로 제시하였다.¹⁹⁾ 김우옹 또한 三綱五常의 도리는 변함이 없는 고정된 것이지만, 制度文章은 손익 즉 변화가 필요하다 고 생각하였다.²⁰⁾ 즉 고정불변의 원칙인 三綱五常은 유지하면서 제도나 문장과 같은 것은 時宜에 부합하도록 경장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²¹⁾ 이러한 경장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김우옹과 이이가 공유했으며 동서분당으로 동인과 서인의 갈등이 본격화되기 이전까지 동일한 관점을 보였다.

그러나 경장의 방법에서 김우옹과 이이는 차이를 보였다. 특히 김우옹은 이이가 다루었던 경장과 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그의 사고는 이이와의 차별성을 보여준다. 이이의 견해에 대해 “사람에게 비한다면 음식이 목숨에 관계함을 알지 못하진 않지만 이제 막 脾臟과 胃腸이 훼손되고 약하여 능히 목에 넘기지 못하는데 지금 도리어 비장과 위장에 대한 약을 써서 원기를 부지하여 먹을 생각이나도록 하지 않고 다만 술과 고기만 그에게 억지로 권한다면 통하지 못할 것이 아니겠는가”²²⁾라고 하여 이이가 제도개혁을 우선시한 입장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드러내었다. 김우옹은 군주의 자세 즉 立志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장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가졌다.

18) 『栗谷全書』卷5, 疏筭, <萬言封事(甲戌)>, “太祖啓運 世宗守成 始用經濟六典 至于成廟 刊行大典 厥後隨時立法 名以續錄 夫以聖承聖 宜無所不同 而或用經濟六典 或用大典 添之以續錄者 不過因時而已 當其時也 建白創制 人不爲怪 而法行不滯 民得蘇息”

19) 『栗谷全書』卷5, 疏筭, <萬言封事(甲戌)>, “大抵隨時可變者 法制也 亘古今而不可變者 王道也 仁政也 三綱也 五常也 後世道術不明 不可變者 有時而遷改 可變者 有時而膠守 此所以治日常少 亂日常多者也”

20) 『宣祖實錄』卷7, 6년 9월 21일(戊戌).

21) 이에 대해 척신정치의 잔재를 청산하고 사림정치의 토대를 구축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설석규, 앞의 논문(1999), 102쪽).

22) 『東岡先生年譜別本』壬申 9월 21日條.

Ⅲ. 경세론의 구조와 내용

김우옹은 경세서를 별도로 저술하지 않았지만 그의 관료생활을 통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김우옹의 경세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에 서술된 김우옹의 견해들과 <경연강의>를 비롯하여 그가 올린 상소나 차자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김우옹이 주장한 내용들을 범주화하여 경세론을 정치, 안민, 교민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政治體制論

김우옹은 정치를 개선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修己’, 즉 군주의 마음가짐[立志]을 중시했다. 김우옹은 군주의 심신이 中正되어야 가르침을 관장한 사람도 중정하며, 만민도 중정하게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군주의 심신은 萬化의 근본이며 만민이 取正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²³⁾ 또한 『춘추』의 “한번 임금을 바르게 하면 나라가 안정될 것이다”라는 구절을 근거로 君道는 곧 天道라고도 주장하였다.²⁴⁾ 또한 “조정이란 사방의 근본이고, 賢才는 치세를 이루는 도구이니, 조정을 바르게 하고 현재를 모으는 근본은 또한 군주의 一心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라고도 하며 군주의 수신이 곧 모든 정치의 근원이 됨을 밝혔다.²⁵⁾

이러한 김우옹의 관점을 대표적으로 반영한 것이 <聖學六箴>이다. <성학육잠>을 통해 김우옹이 구성한 聖學에 대한 구조는 다음의 序文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 『宣祖實錄』 卷11, 10년 5월 3일(庚寅).

24) 『東岡集』 卷14, <經筵講義> 辛巳 3月 28日條.

25) 『東岡先生年譜別本』 癸未 4月條.

우리 전하께서 춘추가 넉넉하고 聖質의 고명함으로 뜻을 가다듬어 학문에 힘써 광명이 계속 빛남에도 오히려 겸손히 조심스런 마음으로 스스로 聖智로 자처하지 않으시고 조심스레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서둘러 몸을 단속하는 뜻이, 신에게 명하여 箴을 올려 자신을 보조하는 데까지 이르시니 이는 곧 조정 신료들을 깨우치게 했던 마음입니다. 이는 곧 規諫을 들어 예로써 자신을 단속하여 자신을 돌이켜 살피며 실제로 공력을 쓰는 바에 마땅히 극진히 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저하고 성대한 효과가 장차 반드시 날로 진취하여 가히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니, 이! 성대한 일입니다....(중략)...신이 문득 자신을 헤아리지 못하고 만에 하나라도 오움이 될까 하여 여기에 감히 옛날에 들은 것을 간추려 반복 탐구하여 말이 될 만한 것 여섯 가지를 얻었습니다. 대개 먼저 定志를 하여 고식적이고 천속된 말에 좌우되지 마시고, 다음으로 講學으로 넓혀서 한 가지 일이나 한 가지 물건의 이치에도 밝지 못한 점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敬身은 천리를 보존하는 바로 본령의 공부가 되고, 克己는 인욕을 막는 바로서 역행의 요체가 됩니다. 오직 군주를 친근히 해야 덕성을 輔養할 것이고 오직 소인을 멀리 배척해야 본심을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섯 가지가 성학에 가장 절실한 것입니다.²⁶⁾

<성학육잡>에서 김우옹은 定志, 講學, 敬身, 克己, 親君子, 遠小人의 6가지 항목을 제시하며 자신이 구상한 성학론의 구조를 밝혔다. 서문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군주의 수신은 “성대한 효과가 장차 반드시 날로 진취”하기 위한 전제였다. 이는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군주의 도학적 실천이 국가 경영의 시작점에 해당한다는 修己治人論의 전형적인 관점을 보여준다.²⁷⁾ 이러한 인식은 군주의 권한은 인정하되 권한 행사의 이론적 기초는 군주 스스로의 수양에 달려있다는 입장이다.

김우옹은 군주의 私心에 의한 권력의 행사나 정책의 추진에 비판적이었다. 공부일체론을 바탕으로 내수사의 자의적인 운영에 대해 비판하였으며,²⁸⁾ 율내 토목공사의 진행이나,²⁹⁾ 女樂의 사용³⁰⁾ 등에 대해 부정적

26) 『東岡集』 卷15, 箴, <聖學六箴 序>.

27) <성학육잡>의 작성을 전후로 이황은 『聖學十圖』를 이이는 『聖學輯要』를 제정한 바 있다. <성학육잡>의 구조가 가진 의미를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두 자료와의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성학집요』의 修己章에 제시한 立志에서 功效까지의 12항목과 <성학육잡>에서 제시한 6항목과의 비교검토는 당시 성학론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으로 인식하였다. 반면 경연을 통한 신료와의 잦은 접견, 그리고 공적 기구를 통한 공론의 형성을 통해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을 지향하였다.³¹⁾

김우옹은 군주의 전제성보다는 天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는 그가 경연석상에서 언급한 다음의 견해에서 알 수 있다.

(a) 하늘은 본래 백성을 위하여 임금을 세운 것입니다. 分位로 말한다면 임금과 백성은 명분이 관련하여 하늘·갓[冠]과 땅·신[履]의 관계와 같아서 그 질서는 혼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총명한 사람을 元后로 세우고 백성의 부모가 되게 한다고 하였으니, 명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반역의 무리가 백성을 위한다는 핑계로 경솔히 君親을 저버리는 짓을 하게 됩니다. 다만 후세에는 명분이 엄한 것만 알고 백성을 위하여 임금을 세운 뜻은 모른 채 방자하게 백성의 위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고 있으므로 임금과 백성 사이에 情勢가 막히고 끊어지게 되어 임금과 백성이 일체라는 것을 모르게 되었습니다.³²⁾

(b) 맹자의 말에 “백성이 귀하다[百姓爲貴]”는 대목에 이르러 신 우옹이 진강하였다. “이 말은 常分으로 말한다면 매우 상반되는 듯하지만 天理로 말한다면 侯王君公을 세운 것이 오직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군주가 군주인 所以는 백성을 위하기 때문이니 어찌 백성이 귀하지 않겠습니까?”하면 김수가 “주자가 ‘분수로 말한다면 임금이 귀하고 이치로 말한다면 백성이 귀하다.’고 하였는데, 맹자는 당시의 군주가 백성을 소나 양처럼 천하게 보았기 때문에 다만 이치로만 말하고 분수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아뢰었다.³³⁾

김우옹은 군주와 백성이 分位·常分の 관점에서는 군주가 높은 위치에 존재하지만 본질과 天理의 관점에서는 항상 백성이 상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군주는 天理에 따라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하는 대리인에 불

28) 『東岡先生年譜別本』 癸酉 10月條；『東岡先生年譜別本』 癸酉 10月條.

29) 『東岡集』 卷3, 疏, <進言乞退疏(癸未)>.

30) 『宣祖實錄』 卷15, 14년 3월 30일(癸巳)；『東岡集』 卷14, <經筵講義> 辛巳 3月 28日條.

31) 『東岡集』 卷7, 筭, <玉堂請頻接臣僚筭(己卯十月)>.

32) 『宣祖實錄』 卷13, 12년 6월 8일(壬午).

33) 『東岡集』 卷14, <經筵講義> 辛巳 正月 26日條.

과하며,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人主·君主의 직분은 賢才을 등용하고 유능한 사람을 부리는 것이라는 견해에서 알 수 있듯이 군주가 전제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유능한 인물을 등용하여 이들에게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³⁴⁾

이러한 점은 군주 자신이 아닌 대신을 중심으로 한 국정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연결되었다. 대신은 人主의 股肱이며 心膂라는 입장을 전제하고, 군주가 혼자 국사를 전담할 수 없기 때문에 책려·위임하여 대신에게 권한을 부여하기를 주장하였다.³⁵⁾ 賢才의 자질이 있는 인물이 군주를 보좌하면 성덕이 진보되고 기강이 세워져서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³⁶⁾ 이러한 점은 皇極으로서 군주의 위상은 인정하지만 군주가 자신의 권력을 대신에게 일임하여 국정운영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었다. 대신을 통해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조종의 옛법”³⁷⁾이며, 대신을 “天職을 맡은 이들로 과거의 太師·太保에 비견”³⁸⁾하며 군주와 마찬가지로 天의 위임을 받은 인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군주의 전제성을 인정하면서도 군주의 직접적인 통치행위보다는 대신을 중심으로 한 국정운영을 이루고자 했던 것으로, 정도전 이래로 조선초기부터 이어진 대신 중심 정치론을 계승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³⁹⁾

34) 『東岡集』 卷14, <經筵講義> 辛巳 3月 28日條.

35) 『東岡先生年譜別本』 癸酉 12月 24日條.

36) 『宣祖實錄』 卷9, 8년 6월 24일(辛卯).

37) 『東岡集』 卷12, <經筵講義> 甲戌 正月 29日條.

38) 『東岡集』 卷12, <經筵講義> 乙亥 6月 8日條.

39) 김우옹의 정치운영론은 정도전의 재상정치론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朝鮮經國典』 등에 나타난 정도전의 재상정치론은 군주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보다는 과거 제를 통해 조정에 진출하여 관료적 경험에 축적된 재상의 권한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재상정치론·군신공치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정도전의 재상정치론에 관해서는 도현철, 「정도전의 정치체제 구상과 재상정치론」, 『한국사학보』 9, 2000, 184~190 쪽 참조. 한편, 군주와 관련한 김우옹의 정치론을 군주 중심의 경세론으로 정의하고 이것이 이후 박세채가 주장한 황극탕평론의 원형으로 이해하기도 한다(이석규, 앞의

聖學를 실천하는 군주와 賢才의 자질이 있는 대신이 권력의 중추로서 기준을 잡게 되면, 다음 단계로는 관료 조직 내부의 기강 회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김우옹에게 기강은 民事로 표현된 민생문제와 직결되었으며, 관료사회에서 기강의 문란은 결과적으로 민생의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⁴⁰⁾ 따라서 민생문제와 직결된 것으로 조정 내부에서 관행으로 운영되던 사례를 폐지하고자 했다. 이러한 관료 사회의 기강 문제는 관료로서의 도덕성, 관료 선발, 그리고 爲民의 직접적인 주체인 지방관의 선발 및 관리로 구분되었다.

기강에 대한 문제의 제기는 훈척정치 이래로 관행이 되었던 관료 사회 내의 청탁·비리와 연관되어 있기도 했다. 명종 말 문정왕후의 사망을 계기로 윤원형 등 훈척정치의 구조는 종말을 고했지만, 훈척정치 이래로 지속적으로 운영되던 관료사회 내의 폐단들은 지속되었다. 이러한 관행은 선조대에도 지속되었으며, 이를 규제할 마땅한 규례들도 마련되지 못했다.⁴¹⁾ 이에 대해 김우옹은 비판적인 인식을 가졌다. 입사 초기 면신례를 행할 때에 김우옹이 士子의 持身之道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리를 떠났던 사례는 김우옹이 관행보다는 관료제 내부의 기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보여준다.⁴²⁾

이러한 관점으로 인해 김우옹은 이이가 제기했던 관료들의 家供法 시행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⁴³⁾ 김우옹은 가공법 시행에 따라 말단 관원들의 支供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가공법을 통해 각사의 지공 부담을 줄이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⁴⁴⁾

논문(2015), 252~254쪽).

40) 이석규, 앞의 논문(2015), 240~243쪽.

41) 중국, 한국, 베트남 등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에서 시행되었던 과거제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공평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상과 달리 현실에서는 과거 응시와 합격이 특정 계층 혹은 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균등이나 공정과는 거리가 먼 관료입사방식이었다. 또한 이러한 특권화는 관료주의와 부패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관료제 알렉산더 우드사이드, 민병희 옮김, 『잃어버린 근대성들』, 너머북스, 2012, 112~121쪽 참조.

42) 『東岡先生年譜別本』 辛未年條.

43) 『宣祖實錄』 卷8, 7년 10월 13일(甲寅).

이는 군주뿐만 아니라 관료들 또한 국가권력의 중심에 위치하여 관료주의에 머무는 것이 아닌 爲民의 자세로 관료생활을 해야한다는 문제의식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관점은 군주를 비롯하여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관료들은 권력자가 아닌 天의 대리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사고관이라고 할 수 있다.

기강문제의 연장선상에서 김우옹은 당시 관료제의 문제점이 과거제를 통해 도덕적인 측면이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 관료선발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김우옹은 천거제를 통해 과거제로 관료를 선발하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했다. 천거제의 시행 및 관료의 직무와 관련된 견해들은 중종대 기묘사림 이래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내용이기도 했다.⁴⁵⁾ 김우옹뿐만 아니라 선조대 전반 천거제의 시행을 주장했던 인물들은 경연에서 이와 같은 견해를 지속적으로 제시하였다.⁴⁶⁾ 당시에는 천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한 未出身者들을 憲官에 임용하는 문제에 미온적인 반응이 있었으나 김우옹은 더욱 적극적인 입장에서 천거를 통한 遺逸의 등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우옹은 山林之士로 알려진 유일의 천거는 蔭敍를 통한 南行과는 다른 성격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선발된 인물들은 일반 관료들과 차서에 구애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⁷⁾ 김우옹은 이들의 직무를 經筵入侍나 세자교육 등 聖學을 진작시키고 정치의 자문을 하는 것으로 국한시켰다.⁴⁸⁾

김우옹의 기강에 대한 문제의식은 관료 중에서도 지방관의 선발과 감독에 연결되었다. 지방관은 향촌 사회에서 직접적으로 牧民을 주관하는

44) 『東岡集』 卷12, <經筵講義> 甲戌 正月 29日條.

45) 崔異敦, 「16세기 士林派의 薦舉制 강화운동」, 『韓國學報』 15-1, 1989, 89~146쪽 ; 최선희, 「조선헌전기 유일 천거제의 운영과 그 의의」, 『朝鮮時代史學報』 56, 2011, 5~44쪽.

46) 이와 같은 경향은 인조반정 이후 司業과 같은 山林職이 신설되는 경향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인조반정 이후 산림직의 설치와 산림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우인수, 『朝鮮後期 山林勢力研究』, 一潮閣, 1999 69~79쪽 참조.

47) 『宣祖實錄』 卷7, 6년 12월 1일(丁未) ; 『東岡集』 卷11, <經筵講義> 癸酉 12月 1日·2日條.

48) 『宣祖實錄』 卷72 29년 2월 16일(癸丑).

담당자라는 측면에서 김우옹은 수령을 엄선하여 향촌사회를 안정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김우옹은 단순히 ‘엄선’이라는 추상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시종신들을 외방에 파견하거나, 兩漢 때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입사 관원들을 모두 州縣의 지방관으로 파견하여 능력을 확인한 후에 六曹와 臺省에 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臺省과 侍從臣들도 지방관으로 파견하여 京官과 外官을 균형있게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⁴⁹⁾ 또한 주현뿐만 아니라 驛路에도 四館의 문관을 파견하고, 幽谷의 寮訪은 魚川의 大同例에 의거해서 문관을 뽑아 파견하여 향촌사회에까지 국가의 통제와 보호가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였다.⁵⁰⁾

이와 함께 수령 등 지방관들을 감독하는 방식으로 중국에서 운영했던 分臺御史를 근거로 암행어사제의 도입을 주장했다.⁵¹⁾ 특히 기존의 어사제도가 어사가 미리 방문할 것을 알려주었으나 새롭게 도입하는 어사제도는 암행 즉 감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지방관들은 기존의 감사의 褒貶과는 별도로 암행어사의 평가가 지속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대민침탈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상과 같이 김우옹의 정치론은 군주의 수신에서 출발했지만, 수신 자체에 그치지 않고 대신→중앙관료→지방관료까지 포괄하는 전반적인 관료제 개편론의 입장을 띄고 있었다. 중앙 정치에서는 군주와 함께 국가 경영의 주체로서 대신을 상정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관료사회의 기강과 관련된 문제들을 가공법이나 천거제와 같은 제도적인 차원으로 확장시키고자 했다. 특히 지방관의 선발·관리·감독과 관련해서는 관료의 엄선이라는 추상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중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이를 조선의 방식으로 활용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9) 『宣祖實錄』 卷15, 14년 2월 10일(甲辰) ; 『東岡集』 卷14, <經筵講義> 辛巳 2월 10日條 ; 『宣祖實錄』 卷51, 27년 5월 30일(丁未).

50) 『東岡集』 卷14, <經筵講義> 辛巳 正月 26日條.

51) 『宣祖實錄』 卷15, 14년 2월 10일(甲辰) ; 『東岡集』 卷14, <經筵講義> 辛巳 2월 10日條.

2. 安民論

安民은 민생문제와 직결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경세론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김우옹이 활동했던 선조대에는 공안개정론과 관련된 공납제 문제, 그리고 방군수포제의 관행에 따른 군정과 관련된 문제 등이 주요한 안민의 주제로 다루어졌다. 공납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조대 초반 正供都監의 설치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고자 했으나,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폐지되었고, 군정의 문제 또한 甲戌軍籍을 작성하여 군역의 재조정을 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전과 마찬가지로 實額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작성되면서 개선되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우옹은 軍政을 중심으로 한 力役 문제와 관련한 견해들을 집중적으로 제시하였다. 16세기 군역은 代立과 방군수포가 일반적으로 자리잡아가기 시작했다. 명종 8년에 편성된 계축군적과 선조 7년에 편성된 갑술군적은 군역자원의 파악이라기보다는 각사의 재정보충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⁵²⁾ 이에 대해 김우옹은 군역 자원의 확보 문제, 그리고 확보된 군역을 관리하는 문제를 구분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우선 군역 자원의 확보와 관련한 김우옹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오늘날 폐단을 바로잡는 방법은 다만 헛된 액수가 많기를 힘쓰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실제의 군역을 채우기를 힘써서 軍丁이 다 충실하게 되면, 백성의 힘이 퍼지고 流亡했던 사람도 점점 돌아올 것이니, 액수를 줄인다 하더라도 뒤에는 반드시 늘어날 것입니다. 헛된 액수를 채우기만을 힘쓰고 충실하지 않게 한다면, 이들이 유망하여 그 해가 일족과 이웃에게 미쳐 백성이 모두 있을 곳을 잃는 유민이 될 것이니, 그렇다면 액수를 늘인다는 것이 곧 줄이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이것은 계축년 이래 수십 년 동안 백성의 큰 걱정거리가 된 것이니, 이제 경계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⁵³⁾

52) 이에 대해서는 김성우, 「공민층의 몰락과 국역체제의 해체」,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119~125쪽 참조.

53) 『宣祖實錄』 卷7, 6년 11월 26일(壬寅); 『東岡集』 卷11, <經筵講義> 癸酉 11월 26日條.

김우옹은 현재 군적작성의 문제점에 대해 實額에 근거하지 않고 정해진 軍額에 근거하여 軍籍이 작성되는 것에 있다고 규정하고, 실액에 부합한 군적 작성을 통해 군액과 군적을 현실화시키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유망한 백성들의 귀환을 유도하면, 장기적으로 군액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였다. 김우옹은 당시 군적 문제와 관련하여 실상대로 조사하지 않고 간리들이 뇌물을 받아서 천민들만 군역을 지게 되어 의지할 곳 없는 백성들이 흩어진다고 생각하였다.⁵⁴⁾ 또한 軍籍使들이 風旨만 잘 받들기 위해 급박하게 액수 채우기만을 힘써 虛張한 것이 많다는 표현을 통해 볼 때 군액의 확보를 각사의 재정 보용으로 이해하는 관행이 정립되어 가고 있었다고 인식하였다.⁵⁵⁾ 김우옹은 군역자원의 확보 문제를 재정보다는 군사적 측면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허액이 아닌 실액을 바탕으로 군적이 작성되어야 했으며 그것이 백성들의 유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라 전망했다. 김우옹은 군정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대해 군액의 다과에 따라 군현별 군액분정을 재조정하고, 旅外를 폐지하여 正軍으로 채움으로써 유망에 따른 궤액을 보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⁵⁶⁾ 良丁의 확보와 관련하여 김우옹은 종부법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우옹은 양역 자원의 확보를 위해 천인의 경우 부계를 따라야 하는 義理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⁵⁷⁾ 김우옹은 실액에 근거한 군적작성을 통해 유망한 백성들이 귀환하기를 유도하고, 여외의 폐지를 통해 正軍의 군액을 증가시키고자 했다.

54) 『東岡集』 卷2, 疏, <論疏敍姜克誠疏(甲戌七月副修撰時)>.

55) 『宣祖實錄』 卷7, 6년 11월 26일(壬寅); 『東岡集』 卷6, 筭, <玉堂陳時弊筭(癸酉十二月副修撰時○同僚副提學柳希春校理尹卓然趙廷機副修撰金宇宏)>.

56) 『宣祖實錄』 卷7, 6년 12월 28일(甲戌).

57) 『宣祖實錄』 卷7, 6년 11월 26일(壬寅); 『東岡集』 卷11, 『經筵講義』 계유 11월 26일 30일. ‘一賤則賤’의 원칙은 종래에 준용되던 천인에 대한 원칙이었으며, 16세기에 갑자기 발생한 문제는 아니었다. 종모법과 종부법에 대한 논의는 논란을 거쳐 조선 후기 사회에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갔으며, 영조대에 이르러 종료되었다. 이에 대한 연구는 李成茂, 『朝鮮初期 奴婢의 從母法과 從父法』, 『歷史學報』 115, 1987, 43~71쪽; 平木實, 『朝鮮後期奴婢制研究』, 지식산업사, 1982, 132~138쪽 참조.

실역을 바탕으로 한 군적 작성이나 여외의 폐지, 노비종부법의 주장 등이 군역 확보와 관련된 문제였다면 다른 한편으로 군역대상자들을 관리하는 邊將의 문제도 함께 검토되었다. 당시 침사만호 등은 별도의 봉록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방한 군사들에 대한 침학이 지속되었다. 이에 대해 김우옹은 병사수사만이라도 책임자를 가려서 보내고, 또 순무어사를 책임자를 차임하여 보내어 지속적인 변장들의 통제와 관리를 통해 침해를 줄이도록 제안하였다.⁵⁸⁾ 또한 여러 고을의 耗穀을 변장에게 지급하여 먹고 입게 하여 군졸들에게 양식을 거두는 것을 엄금하여 현실적인 문제인 봉록이 지급되지 않는 변장들의 구제책까지 함께 검토하였다.⁵⁹⁾ 결과적으로 변장에 대한 통제와 지원을 통해 당시 군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단을 줄여보고자 했다.

다음으로 김우옹은 공노비의 신역에 해당하는 選上制를 개선하고자 했다.⁶⁰⁾ 선상제는 ‘民中最苦’로 일컬어질 만큼 향촌에 거주하고 있던 공노비들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선상제로 인해 상경하여 신역을 수행했던 노비들은 생업과의 분리, 입역기간 동안 의식주의 마련, 番次의 不均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⁶¹⁾ 그리하여 選上代立이라는 형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중종대에는 이것이 일종의 녹봉의 일부로 여겨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⁶²⁾

김우옹은 현재 선상제의 운영방식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가졌다. 김우옹은 선상의 본질은 驅從, 즉 데리고 다니기 위한 것이었으나, 사사로이 놓아보내고 값을 받는 부세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선

58) 『宣祖實錄』 卷13, 12년 4월 19일(甲午); 『宣祖修正實錄』 卷13, 12년 4월 1일(丙子); 『東岡集』 卷13, <經筵講義> 己卯 4月 13日.

59) 『宣祖修正實錄』 卷15, 14년 1월 1일(丙寅); 『東岡集』 卷14, <經筵講義> 辛巳 正月 26日.

60) 조선전기 선상제는 공노비들이 跟隨奴와 差備奴로 사역되는 것을 의미한다. 『經國大典』에는 이들의 역할과 액수들이 정해져 있다(『經國大典』 卷5, 刑典, <諸司差備奴根隨奴定額>).

61) 선상제를 비롯한 조선전기 공노비제도의 구조 등에 대해서는 池承鍾, 『朝鮮前期 奴婢身分研究』, 一潮閣, 1995, 240~254쪽 참조.

62) 池承鍾, 앞의 책(1995), 261~263쪽 참조.

상의 명목을 폐지하고 身貢 1필을 받아서 內贍寺에서 百僚들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변동하기를 제안하였다.⁶³⁾ 이러한 김우옹의 주장은 다음해 이이에게서 재론되었다. 이이는 <만언봉사>에서 선상제를 폐지하고 代立價布로 전환하기를 주장했다.⁶⁴⁾ 이러한 점은 점차적으로 선상제가 가진 의미가 퇴색되고 선상의 혜택을 받는 각사나 관료들이 이를 녹봉과 유사하게 인식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나타난 견해들이다. 물론 당시 대립가포를 주장했던 김우옹과 이이의 견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조선후기에 와서 선상제가 폐지되고 고립역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⁶⁵⁾

한편, 임진왜란 이후 김우옹은 주현병합을 비롯한 지방행정 제도 개편을 제시했다. 김우옹은 小邑을 합병하여 대읍으로 전환하고, 지방통치에서 행정과 군사를 구분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牧使와 判官을 별개로 두어서 목사는 백성을 다스리는 일만 맡아 재용을 관장하고, 판관은 관례대로 장임을 겸하여 병사를 다스리도록 하자고 주장하였다. 일반 군현뿐만 아니라 도 단위에서도 감사는 목사를 거느려 오로지 민사만을 맡고 兵使·水使는 장수를 거느리고 병정만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⁶⁾ 이러한 김우옹의 지방행정제도의 변화상은 당시 임진왜란이라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일반 행정과 군정의 이원화를

63) 『宣祖實錄』卷7, 6년 12월 16일(壬戌); 『東岡集』卷11, <經筵講義> 癸酉 12월 16日條.

64) 이이는 김우옹과 마찬가지로 선상제를 폐지하고 신공액을 加定하여 奴는 면포 2필, 婢는 면포 1필반을 매년 납입하게 하여 5분의 2는 사섬시에 비추하여 國用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5분의 3을各司에 분급하여 선상의 역과 관련한 용도로 쓰게 하자고 주장하였다(『栗谷全書』卷5, <萬言封事(甲戌)> “臣愚以爲改身役而受綿布 已非大典之法 則今亦可廢選上而加身貢也 伏望殿下 命該官詳考奴婢之案 據其現存之數 每年奴貢納綿布二疋 婢貢納一疋半 都計幾何 以其五分之二 儲于司贍爲國用 以其五分之三 分給各司 以準選上之役 綿布不足 則量宜減立役之數 夫如是則公賤有定貢 可以預備無猝辦之患 收貢有定 簿無所刪改 絕姦吏之術 號令不煩而民受實惠矣”).

65) 조선후기 고립역의 전개과정은 全炯澤, 「朝鮮後期 奴婢勞動에 있어서의 雇立制의 전개」, 『邊太燮博士 華甲紀念 史學論叢』, 삼영사, 1985, 713~741쪽 참조.

66) 『東岡集』卷5, 疏, <進言疏(丁酉二月大司成時)>.

통해 통치체제상의 문제를 합리화하고, 중복되는 일로 통치체제상 혼선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⁶⁷⁾

그러나 力役 문제와 달리 양전을 비롯한 田制나 공간개정론으로 대표되는 공납제 문제에 있어서 김우옹은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개혁 추진은 급진적인 방식보다는 지방사회의 소요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했다. 대표적으로 선조 16년 量田과 軍籍 작성으로 영남 지역에 다양한 소요가 일어나자 무리한 양전사업의 시행보다는 교화의 입장에서 점진적으로 시행하기를 주장하기도 했다.⁶⁸⁾ 양전이나 공간개정과 같은 무리한 사업의 추진이 오히려 민생 전체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상과 같이 김우옹은 안민론에 있어 군정을 가장 중심적인 문제로 인식했다. 실액에 근거한 군적의 작성, 정군의 확보 방법으로 여외의 폐지, 종부법의 도입 등은 김우옹이 독자적인 현실인식을 통해 제안한 해결방안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선상제를 부세화시킨다는 점은 당시 운영되고 있던 선상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연유한 것이었다. 아울러 임진왜란 이후 주현병합론과 같은 지방제도 개편안을 제기한 것은 시대현실에 맞는 해결안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 敎民論

교민론은 교육과 교화로 구분된다. 교육은 관학인 성균관·향교의 운영

67) 한편, 김우옹이 주현병합론은 선조대 전반 이이가 주장했던 주현병합론과는 차이가 있다. 이이는 공납제의 문제에서 불산공물과 공물분정의 불균 문제로 인해 주현병합을 주장하였다(박도식, 「율곡 이이의 공납제(貢納制) 개혁안(改革案) 연구」, 『율곡사상연구』 16, 2008, 206~237쪽; 이정철, 「栗谷 李珥의 貢物進上 개혁안의 영향과 한계」, 『한국사연구』 144, 2009, 165~199쪽; 이정철, 「이이 經世論의 성립과 그 정치적 배경」, 『史叢』 75, 2012, 163~193쪽). 반면 김우옹은 임진왜란이라는 현실 속에서 군사와 행정을 구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현병합론과 監司-牧使, 兵使-水使-判官의 이원적 체제를 구상하였다. 이는 표면상으로 유사한 경세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제출된 문제의식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68) 『東岡集』 卷3, 疏, <進言乞退疏(癸未)>.

에 대한 사안에서 나타나며, 교화는 향약을 중심으로 구현되었다.⁶⁹⁾ 대체로 이들은 16세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김우옹 또한 자신의 경세론에서 교민론을 한 축으로 형성하고 있다. 김우옹은 교육에 있어서는 성균관·향교에 대한 운영의 방식을 검토했으며, 향약에 있어서는 향약 자체의 기획보다는 향약의 시행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였다.

성균관 운영에 있어서 홍문관원들을 성균관 學職에 겸임하여 교육운영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를 주장했다. 이는 중종대 기묘사림들이 운영했던 방식을 계승한 것이었는데,⁷⁰⁾ 경연에 입시하는 當番에는 본직인 경연관으로 입직하고, 非番에는 성균관의 學直으로 활동하여 士習을 바로잡도록 제안하였다.⁷¹⁾ 이를 통해 성균관 유생들의 학문적인 성과를 향상시키고 동시에 성균관 관원의 인력을 확대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인 관학 운영을 지향했다.

아울러 성균관 내부에서 생원·진사 등 과거합격 유무를 통해 次序가 정해졌던 것을 변화시켜 序齒에 따라 정할 것을 주장하였다.⁷²⁾ 이는 성균관은 경학을 학습하는 학교라는 인식을 토대로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우옹은 생원은 성균관 내에서 생도일 뿐 科目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⁷³⁾ 이를 통해 교육기관으로서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학업의 목적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성균관 운영에 대한 김우옹의 견해는 그가 대사성으로 활동하면서 작성한 <成均館學制七條啓>에서 확인할 수 있다.⁷⁴⁾ <성균관학제칠조계>

69) 敎民의 범주에서 교육과 교화를 연계하여 이해하는 사교관은 조선후기에도 보편적으로 전개된 관념이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유형원은 『磻溪隨錄』에서 이에 대해 敎選論의 관점에서 이해하기도 한다. 유형원은 향약과 貢擧 즉 관료 선발에 대한 제도를 두어 향촌교화와 교육을 연계하여 이해했다. 유형원의 교선포에 대해서는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敎選論과 貢擧制 구상」, 『한국사연구』 182, 2018, 143~198쪽 참조.

70) 『宣祖實錄』 卷9, 8년 6월 8일(乙亥) ; 『宣祖實錄』 卷9, 8년 6월 24일(辛卯).

71) 『東岡集』 卷12, <經筵講義> 乙亥 6月 8日條.

72) 『宣祖實錄』 卷8, 7년 11월 5일(乙亥).

73) 『宣祖實錄』 卷9, 8년 6월 8일(乙亥).

74) 『宣祖實錄』 卷17, 16년 5월 5일(丙戌) ; 『東岡集』 卷9, 啓辭, <成均館學制七條啓>

에서는 특히 기존의 上舍와 下齋와는 별도로 경학과 행실이 있는 사람을 經行齋에 두도록 했으며, 경쟁제에 속한 齋生 중에서 뜻이 성취된 인물들을 관료로 선발해야 된다는 입장이 반영되어 있었다. 이는 기존의 학생천거제와 함께 별도의 조직을 구성, 이를 바탕으로 천거제를 결합했다. 이와 함께 師儒의 선발에 있어 앞에서 언급한 홍문관원이 學職을 겸하도록 하는 입장을 반복함과 동시에 신규 급제자들을 權知로 삼아 성균관 교육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향교 운영과 관련하여 訓導의 엄선과 관리를 요청하였다. 김우옹은 훈도가 교육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향촌 사회에서 교육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에 따라 훈도의 선발을 중앙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향촌 단위별로 유생들의 공의를 통해 수령이 관찰사를 거쳐 轉報하여 吏曹에서 차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⁷⁵⁾ 이는 피교육자들이 師表로 존경할 수 있는 인물이 향교의 훈도로 차임된다면 향교의 교육 또한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한편 김우옹의 향교에 대한 문제의식은 향촌사회에 거주했던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훈도의 差遣에서 재신의 行下만을 쓰거나 서리가 뇌물을 주는 사례가 횡행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훈도로서의 교도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진단하였다. 김우옹은 단순히 公選과 함께 유생의 공의를 논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인식태도를 보여주는데, 병으로 作散하여 향리에 거주하는 인물들을 주희 등 송대의 사례인 祠官의 예에 따라 해당 고을의 교관으로 삼

未大司成時)〉. <성균관학제질조계〉를 중심으로 김우옹의 교육개혁론에 대한 분석은 송준식, 「東岡 金宇顥의 教育改革論」, 『남명학연구논총』 12, 2003, 157~179쪽 참조. 해당 논문에서는 7條를 ①土風振作(學令, 讀法), ②獎學(置經行齋), ③教官優待(擇師儒), ④學生選拔學校內實化(選生徒, 貢士), ⑤人才選拔(貢士, 取士)로 구분하고, 사풍의 진작부터 최종적인 관료선발에 미치기까지 학교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교육개혁안이라 평가하였다.

75) 『宣祖實錄』 卷7, 6년 12월 1일(丁未); 『東岡集』 卷11, <經筵講義> 癸酉 12월 1日條.

고자 하였다.⁷⁶⁾

이상의 언급들이 성균관·향교 등 관학 교육과 관련한 문제였다면, 일반 백성의 교화와 관련해서 향약을 들 수 있다. 향약은 선조 초부터 許曄 등을 중심으로 시행이 건의되었고, 시행과 폐지를 반복하며 사회정책에 있어 민생안정에 중심을 둔 養民의 입장과 교화에 중심을 둔 教民의 입장 사이에서 지속적인 논란이 되어왔던 주제였다.⁷⁷⁾ 이러한 과정 속에서 김우옹 또한 향약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金宇顥이 나아가 아뢰기를, “향약을 어찌 행할 수 없겠습니까? 이 일에는 근본이 있어야 하는데 요점은 임금에게 달려 있는 것으로 몸소 행하고 마음으로 체득하여 모범이 되고서야 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걸치레일 뿐입니다. 이제 행하려 하신다면 聖志에 더욱 면려를 가하소서. 만약 향약은 오늘날에 행할 수 없다고 여긴다면 크게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지난번 經筵官이, 주자가 향약은 행하기 어려우리라고 하였다는 말을 인용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교화는 반드시 위에서 하는 것인데, 주자는 아랫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행하기 어렵게 여겼으나 이제 전하께서는 이를 수 있는 자리에 계시니, 무엇 때문에 행하기 어렵겠습니까. 오직 힘쓰기에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 과연 행하기 어렵다면 주자가 무엇 때문에 呂氏의 글을 증감하여 후세에 가르침을 전했겠습니까. 주자의 뜻은 바로 한때에 행해지지 못하는 못하더라도 후세의 임금이 본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니 전하께서 오늘날 행하신다면 곧 주자의 道가 오늘날에 행해지는 것인데, 어찌 성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힘쓰소서.”⁷⁸⁾

76) 『宣祖實錄』 卷11, 10년 5월 11일(戊戌); 『宣祖修正實錄』 卷12, 11년 5월 1일(辛亥); 『東岡集』 卷13, <經筵講義> 丁丑 5월 11日條. 한편 향교의 훈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주장한 것은 김우옹이 20세에 吳健이 향교의 교수로 성주에 부임하였는데 그에게 왕래하며 질정한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東岡先生年譜別本』 己未年條). 자신이 경험한 긍정적인 결과를 토대로 김우옹 스스로 향촌사회에서 향교의 훈도의 차임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77) 이 시기 향약과 관련한 논의에 대해서는 韓相權, 「16·17세기 鄉約의 機構와 性格」, 『震檀學報』 58, 1984, 17~68쪽; 金盛祐, 「선조대 사람과의 정국 장악과 개혁노선의 충돌」, 『한국사연구』 132, 2006, 33~73쪽; 김인걸, 「栗谷 鄉約 再論-養民을 위한 人材 육성」, 『韓國史論』 53, 2007, 97~142쪽; 김경래, 「宣祖代 초반의 鄉約 시행 논란과 栗谷 李珥의 ‘迂儒’ 비판」, 『한국학연구』 46, 2017, 293~322쪽 참조.

78) 『宣祖實錄』 卷7, 6년 9월 21일(戊戌); 『宣祖修正實錄』 卷7, 6년 9월 1일(戊寅);

김우옹은 향약 시행의 타당성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군주 스스로 마음으로 체득하여 모범이 되어야 향약을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후에도 『詩經』의 <關雎>·<麟趾>의 뜻이 있어야 『周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군주의 실천이 전제되지 않으면 향약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⁷⁹⁾ 김우옹의 향약 시행을 중심으로 한 교화의 방향은 군주의 수신을 바탕으로 관료 조직과 일반 백성까지 교화가 단계적인 방법을 통해 확산되는 것에 있었다.⁸⁰⁾

이와 더불어 김우옹은 군주의 수신이 곧 교화와 직결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선조 6년 수원에서 아들이 모친을 살해한 사건에 대한 김우옹의 입장을 들 수 있다. 김우옹은 이것이 교화가 밝지 못하여 생긴 원인으로 진단하고, “군주가 스스로 질책하여야지 우연한 일이라 소홀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⁸¹⁾ 즉, 향촌사회에서 발생한 우연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교화의 출발점인 군주의 자세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교화의 방식으로 김우옹은 군주의 수신 혹은 입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김우옹의 향약에 대한 입장은 선조 6년 이후에도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선조 18년에 향약을 언급하면서 김우옹은 절목을 상세하게 갖추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도 향약의 절목을 세우기 이전에 군주 스스로 몸과 마음을 닦아야 향약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⁸²⁾ 이는 군주의 修身이 정립되지 못한다면 교화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자신의 입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東岡集』 卷11, <經筵講義> 癸酉 9月 21日條.

79) 『宣祖實錄』 卷7, 6년 10월 12일(己未).

80) 당시 향약 시행의 찬반 논란에 대해 향약을 시행해야 한다는 教民論과 민생안정에 바탕을 둔 養民論의 대립으로 이해하기도 한다(金盛祐, 앞의 논문(2006), 46~57쪽).

81) 『東岡集』 卷11, <經筵講義> 癸酉 12月 24日條.

82) 『東岡先生年譜別本』 乙酉 3月 27日條.

IV. 경세론의 특징과 의의 : 이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우옹은 다양한 층위에서 자신의 경세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은 김우옹이 당면한 현실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음을 보여준다. 김우옹은 ‘修己治人’이라는 성리학적 관점에서 군주성학론과 결합된 경세론을 지향하였다. 김우옹의 경세론은 그의 스승인 조식과 이황의 경세론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선조 1년 이황의 「戊辰六條疏」⁸³⁾와 조식의 「戊辰封事」⁸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황과 조식 모두 수신을 전제로 한 치인을 강조했다며, 군주가 자신의 권력을 ‘用賢’과 ‘任人’이라는 형태로 양도함으로써 이상적인 정치체제를 이룰 수 있다고 여겼다.⁸⁵⁾ 결과적으로 이들은 ‘先修己-後治人’의 방식을 지향했으며, 이러한 사고관은 당시에 보편적인 성리학적 경세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김우옹의 경세론 또한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대신이 중심이 되는 통치체제를 지향했으며, 用賢의 방식으로선 천거제를 주장했다. 그러나 김우옹은 ‘更張’·‘更新’에 대한 입장에 긍정하면서도 이황·조식과는 차이를 보여준다. 김우옹은 당시의 현실이 時宜에 입각하여 변통할 시점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당시 신진사류들과 공유하고 있었다.

김우옹의 경세론은 당시 경세론을 대표하는 이이와의 비교를 통해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이이는 <동호문답>·<만언봉사>를 비롯한 疏劄를 통해 자신이 구상한 경세론의 일단을 제시한 바 있다. 유희춘·노수신 등 당대인들도 이이에 대해 經世의 자질이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한바 있으며, 공간개정론을 비롯한 그가 제시한 견해들은 대동법·종도법을 비롯한 사회경제정책이나 『반계수록』을 비롯한 개혁론의 토대가 되기도

83) 『宣祖修正實錄』 卷2, 원년 8월 1일(戊寅) ; 『退溪集』 卷6, 疏, <戊辰六條疏>.

84) 『宣祖實錄』 卷2, 원년 5월 26일(乙亥) ; 『南冥集』 卷2, 疏類, <戊辰封事>.

85) 이황과 조식의 경세론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은 권인호, 「주자, 남명, 퇴계의 성리학과 경세사상 연구(1)」, 『南冥學研究論叢』 8, 2000, 107~133쪽 ; 권인호, 「주자, 남명, 퇴계의 성리학과 경세사상 연구(2)」, 『南冥學研究論叢』 8, 2001, 89~118쪽 참조.

하였다.⁸⁶⁾ 따라서 동시기에 이이와 함께 현실인식을 공유하고 경세론을 제시했던 김우옹과의 비교를 통해 김우옹 경세론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은 유의미한 접근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김우옹과 이이 모두 更張更新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졌으며, 경연 석상에서 선조에게 다양한 경세론들을 제시하였다는 점은 그들이 가진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⁸⁷⁾

정치체제론에서 김우옹과 이이 모두 ‘修己’와 ‘治人’이라는 관점에서 동일한 인식을 보여준다. 군주의 수신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국정운영은 두 인물 모두 공유하고 있었다. 내수사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나, 토목사업·황납 사건과 같이 선조가 사적인 의도를 보였을 때에 김우옹과 이이는 동일하게 비판적인 관점을 유지했다. 다만 김우옹이 ‘선수기 후치인’의 관점을 철저하게 관철시켜 나갔던 것에 비해 이이는 ‘선수기 후치인’의 관점은 동의하면서도 점차 수기보다는 치인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김우옹은 군주의 立志修身이 전제되지 않은 개혁론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김우옹과 이이 사이의 견해 차이는 다음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우옹이 답하기를, “공이 경연 석상에서 아뢰는 말이 참 좋았다. 다만 事業에 대한 말은 많았으나, 心學에 대한 말이 적은 것 같다. 나의 생각은 그렇지 않으니, 상계서 학문에 들어가는 길을 아시게 되면 정사가 저절로 이치에 맞게 될 것이다.” 하였다. 이이가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매우 좋다. 다만 내가 아뢰는 것은 모두 立志

86) 이이 경세론이 조선후기 사회에 끼친 영향은 이경동, 「조선후기 정치·사상계의 栗谷 李珣 인식 변화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62~193쪽 및 228~242쪽 참조.

87) 한편 김우옹은 임진왜란 이전까지 스스로를 실천적인 경세가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임진왜란을 계기로 구체적인 제도 개혁을 주장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이석규, 앞의 논문(2016), 35~36쪽). 그러나 김우옹은 천거제·군정·교육·향약 등에 관해 임진왜란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는 점에서 김우옹 스스로 경세가로 인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견해가 경세론과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우옹의 경세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임진왜란과 같은 대외적 사건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제시되었던 견해들의 변천과 함께 보다 구조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에 관한 일이었다. 반드시 상의 뜻이 좋은 정치를 원하여야 학문에도 힘을 얻으실 것인데, 진실로 그 뜻이 없으시다면 학문에도 안돈할 곳이 없으므로 성심으로 좋은 정치에 노력하시라는 말을 반복하여 아뢰는 것이지, 공업을 앞세우고 학문을 뒤로한 것이 아니다.”하였다.⁸⁸⁾

김우옹은 이이가 지나치게 事業에 치중하고 군주의 修己나 立志에 대해서는 중시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이이가 자신의 입장 또한 김우옹과 차이가 없음을 밝혔지만, 이이가 이후 제시한 대부분의 경제론들이 心學立志 보다는 공안개정 등 事業에 치중했다는 점에서 경제론의 단계와 방법에 대해서는 김우옹과 견해 차이를 보였다.

국정운영의 주체로서 大臣을 중심적인 위치로 놓았다는 점 또한 김우옹과 이이 사이의 동일한 인식을 보여준다. 김우옹이 賢才인 대신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이 또한 대신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이 수행되는 것을 지향하였다. 이이는 송대 程顥가 제시했던 尊賢堂을 모델로 經濟司라는 조직을 구성하여 국가를 경륜할 1~2인에게 의탁하여 개혁을 추진하기를 제안했다.⁸⁹⁾ 반면 김우옹은 경제사와 같이 특정 기구를 신설하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정치체제 내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했다. 김우옹이 그의 만년 경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견해들에서 대신 중심의 통치체제를 구상했던 것은 이러한 사고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었다.

군주의 수신, 대신 중심의 정치체제의 구상과 함께 紀綱에 대한 관점도 김우옹과 이이 모두 주장했던 내용이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입장에서 면신례와 가공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이나 遺逸之士에 입사 방식인 천거제에 대한 관점은 두 인물이 동일했다. 다만, 김우옹은 이이가 관료조직의 기강과 관련하여 제시했던 臺諫의 피험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언급을 확인할 수 없으며, 계미삼찬으로 선조에 의해 추진되어 이이가 동의하는 입장을 보인 郎官 自薦制의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88) 『栗谷全書』 卷29, <經筵日記> 宣祖 6年 10月條.

89) 『栗谷全書』 卷30, <經筵日記> 宣祖 13年 12月條.

보였다. 김우옹은 이이에 비해 公論이라는 틀을 존중했음을 보여준다.

관료 사회의 기강 문제와 관련하여 제시한 지방관을 관리·감독하는 문제에 대해 이이는 監司의 구입(1년→2년)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으나, 김우옹은 감사의 문제가 아닌 암행어사의 파견을 통해 州縣의 지방관들을 감독·통제하려고 하였다. 지방행정조직과 관련한 문제에서 이이는 道臣인 감사의 권한과 이를 통한 도별 통제를 강화하려고 한 반면, 김우옹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각 州縣을 관리하는 관료들의 지속적인 감독을 통해 당면한 향촌사회의 현실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安民論과 관련하여 김우옹은 크게 軍政과 選上制를 중심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군정 개혁에 관련해서는 실액에 입각한 군액의 작성, 그리고 여외의 정군 충정을 통한 군역 자원의 현실화를 달성하고자 했다. 또한 첨사·만호 등에게 봉록을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각 군현별로 운영하고 있는 耗穀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이러한 해결방안은 이이가 <동호문답>과 <만언봉사> 등에서 제시했던 견해들로 김우옹과 이이 경제론 사이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당시 良少賤多의 문제를 이이는 종모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으나 김우옹은 義理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부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이이가 제도를 중심으로 제출한 다양한 개혁안에 대해 김우옹은 과도한 소요가 발생함을 들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우옹은 이이가 제시했던 경제론의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급진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관점을 보였다.

반면 김우옹은 선조대에 조정에서 폭넓게 다루어졌던 공납제의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반면, 이이의 경제론에서 공납제의 문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⁹⁰⁾ 이이는 주현병합론이나 감사구입론을 포함한 제도변통론의 중심에서 공납제를 중심에 두었다. 이이는 군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납제의 문제도 당대에 심각한 향촌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우옹은 공납제 문제를 거론하지

90) 관련 연구는 주 67) 참조

않았다. 이러한 시각은 이후 대공수미법을 주장한 유성룡과 차이를 보인다.⁹¹⁾

주현병합론을 포함한 지방행정제도 개편론에 있어서도 외면적으로는 김우옹과 이이가 유사한 경향을 보였지만, 제안의 계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다. 우선 이이는 공납제 개혁론을 중심으로 주현병합을 포함한 지방제도 개편론을 주장했다.⁹²⁾ 이는 지역별 공물액을 현실화시키고 이를 균질적으로 군현에 부과하기 위해 戶口나 田結을 고려한 주현의 병합을 실시함으로써 백성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세액을 균질하게 하고자 하였다. 반면 김우옹은 임진왜란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과정에서 지방행정조직을 행정과 군사로 이원화하고, 체계적인 전쟁 수행을 위해 군현 병합을 중심으로 지방관료 체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⁹³⁾ 특히 김우옹이 이이가 주현병합론을 제기할 당시 특별히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우옹이 제시한 주현병합론의 내용은 이이와는 차이가 있었다.

敎民論과 관련하여 김우옹은 성균관과 향교를 중심으로 한 관학 교육의 정상화를 지향했다. 김우옹은 성균관에는 홍문관원, 그리고 천거를 통해 입사한 山林之士를 교사로 두어 운영하고자 했으며, 향교에는 낙향한 관료나 향촌에서 公議로 천거한 이들을 訓導로 선발하여 송대 祠官의 사례와 같이 운영하고자 했다. 김우옹은 특히 향교의 경우에는 훈도의 자질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를 정상화하고자 했다.

91) 수미법을 포함한 류성룡의 경세론에 대해서는 장승구, 「류성룡의 철학과 경세론 연구」, 『退溪學報』 134, 2013, 45~81쪽 참조. 김우옹이 공납제 개혁론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기는 쉽지 않다. 다만, 김우옹이 무리한 양전 사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고(『東岡集』 卷3, 疏, <進言乞退疏(癸未)>.), 그가 제시했던 경세론들이 대체로 급진보다는 점진적 접근을 지향하였기 때문에 전국의 공물을 재분정하는 방식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그러나 이 역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92) 『栗谷全書』 卷8, 啓, <六條啓>.

93) 『東岡集』 卷5, 疏, <進言疏(丁酉二月大司成時)>.

이러한 점은 이이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貢擧와 같이 교육기관을 바탕으로 양성된 학생들을 천거 등의 제도를 통해 입사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이이가 <東湖問答>에서 제시했던 選士法을 통해 선발된 관료 후보군을 성균관을 중심으로 양성한다는 방식과 상호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⁹⁴⁾ 또한 관학 운영과 관련하여 왕명으로 제진했던 <成均館學制七條啓>에서 향교의 훈도 선발 규정을 이이가 작성했던 <學校模範>의 내용을 채택한다는 것과 같이 김우옹과 이이가 주장했던 관학 교육의 상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수 있다.⁹⁵⁾

향약 시행에 대해 김우옹은 군주수신이 전제되지 않은 향약 시행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즉 君→臣→民으로 점차 교화의 방향이 확산되어 나가야 하며 군주의 수신, 관료 사회의 기강이 바탕이 된 다음에 향약 시행이 가능하다고 전망하였다. 향약 시행에 대한 先修己-後教民의 관점은 이이도 유사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이이는 자신의 정치적 동료였던 李海壽鄭澈 등과 <諭邑宰文>의 제정과 같이 지방관의 향촌 교화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⁹⁶⁾ 또한 향약에 대해서도 <坡州鄉約>이나 <西原鄉約>의 제정에 관여했으며, <海州鄉約>은 이이 스스로 제정하여 향약 시행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했다면, 김우옹의 경우는 향약을 스스로 제정하는 시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김우옹과 이이 모두 井田制 등 토지제도의 개혁에 대한 언급은

94) 이이가 제시한 選士法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경동, 앞의 논문(2009), 91~93쪽 참조.

95) 특히 김우옹이 <成均館學制七條啓>를 제출했던 시기는 동서분당의 대립이 점차 심화되고 동인에 의해 이이가 조제론자에서 서인에 편당적인 인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학교모범>을 자신의 교육개혁론에 수용했던 김우옹의 태도는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모범>에 대해 당시 동인에서는 이이가 자신의 문도들을 성균관에 있게하려는 편당적인 의도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기도 했기 때문이었다(『宣祖修正實錄』 卷16, 15년 4월 1일(戊子) “大提學李珥進學校模範……其後攻珥者謂珥爲此議 欲以門徒居泮 專據上下權柄云”). 이러한 점에 미루어 보면 이이의 경세론과 유사성을 가졌던 김우옹의 경세론은 동인 내부에서도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96) 정호훈, 「15~6세기 牧民書의 전개와 牧民學」, 『韓國思想史學』 36, 2010, 288~302쪽.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경향은 김우옹과 이이뿐만 아니라 16세기 전반에 걸쳐 경세론을 주장한 대부분의 견해들에서 공통적인 현상이기도 했다. 토지제도뿐만 아니라 양전과 관련한 사항에서도 이이와 김우옹은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러한 김우옹과 이이를 포함한 16세기 경세론적 사유는 이후 조선후기 사상사에서 발생했던 토지제도에 대한 견해들과 다른 지점이기도 하다.⁹⁷⁾ 이는 16세기 경세론과 조선후기에 해당하는 17세기 이후 경세론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이상과 같이 김우옹의 경세론에 대해 간략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에 講官 혹은 性理學者로 규정했던 김우옹의 사상이 ‘經世’라는 틀 속에서 다루어질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김우옹의 경세론은 사림 정치의 시작과 함께 다양한 사회문제가 노출되었던 선조대 전반의 시대 상황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군주성학론의 측면에서는 수기치인으로 상징되는 성리학적 경세론이 강조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의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었기 때문이었다.

김우옹 스스로도 다양한 관력을 거쳤기 때문에 관료생활을 바탕으로 자신이 구상한 경세론이 제시되었다. 김우옹은 당시 ‘更張’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식에 공감했으며, 군→신→민으로 확장되는 단계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신 중심의 정치론은 군주를 절대화하면서도 통치자의 자의성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작동되었다. 이러한 점은 조선초기의

97) 전제개혁론은 16세기까지 사림파를 중심으로 限田制 등에서 일부 검토가 이루어지긴 했지만(이경식, 『朝鮮前期의 土地改革論議』, 『韓國史研究』 61-62, 1988, 217~246 쪽), 경세론개혁론의 틀에서 당대에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전제를 중심으로 개혁론에 대한 접근은 17세기 이후로 대두되어 이후 개혁론의 보편적인 주제로 다루어졌다. 17세기 이후로 田制가 어떠한 맥락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변통론·정전제·사회변혁론 등을 비롯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시대적 맥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세론의 계승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기묘사림들이 지향했던 성학군주론의 결함을 의미했다. 특히 기묘사림들이 지향했던 천거제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은 김우옹이 가진 학문적 연원을 추적할 수 있게 한다.

안민론으로 대표되는 군정과 선상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교민론으로 대표되는 관학 교육과 향약의 문제는 16세기의 조정을 지배했던 논의대상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우옹은 자신의 현실인식에 바탕한 견해들을 제출했다. 안민론에서 김우옹은 군역의 부세화를 반대했지만, 선상제에 대해서는 부세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교민론에서는 성균관·향교를 중심으로 한 예비관료군의 양성을 지속시키고자 하였으며, 향약은 시행에는 동의했지만 군주를 비롯한 통치주체들의 도덕성이 전제되지 않은 무분별한 시행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이러한 점에서 당시 경세론을 주도했던 이이와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조선시대 영남지역 학자들의 경세론에 대한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들은 성리학을 연구한 학자이면서 관료생활을 했거나 향촌사회에 체류하면서 사회현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시론적 단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시대·인물별 경세론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영남지역에서 이해한 당대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구체성을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이 논문은 2019년 8월 2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9년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9월 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1. 원문

『東岡集』 『東岡全書』 『退溪集』 『南冥集』 『栗谷全書』
『宣祖實錄』 『宣祖修正實錄』 『經國大典』

2. 논문

- 김성우,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우인수, 『朝鮮後期 山林勢力研究』, 一潮閣, 1999.
鄭萬祚,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정재훈, 『조선전기 유교 정치사상 연구』, 태학사, 2005.
池承鍾, 『朝鮮前期 奴婢身分研究』, 一潮閣, 1995.
平木實, 『朝鮮後期奴婢制研究』, 지식산업사, 1982.
알렉산더 우드사이드, 민병희 옮김, 『잃어버린 근대성들』, 너머북스, 2012.
高錫珪, 「16·17세기 貢納制 개혁의 방향」, 『韓國史論』 12, 1985.
권인호, 「주자, 남명, 퇴계의 성리학과 경세사상 연구(1)」, 『南冥學研究論叢』 8, 2000.
권인호, 「주자, 남명, 퇴계의 성리학과 경세사상 연구(2)」, 『南冥學研究論叢』 8, 2001.
김경래, 「宣祖代 초반의 정국과 栗谷李珥의 개혁론」,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5.
김경래, 「宣祖代 초반의 鄉約 시행 논란과 栗谷 李珥의 ‘迂儒’ 비판」, 『한국학연구』 46, 2017.
金盛祐, 「선조대 사림파의 정국 장악과 개혁노선의 충돌」, 『한국사연구』 132, 2006.
김인걸, 「‘栗谷 鄉約’ 再論-養民을 위한 人材 육성」, 『韓國史論』 53, 2007.
김정신, 「宣祖代 文昭殿 論爭과 朋黨」, 『韓國思想史學』 22.
金恒洙, 「宣祖 初年の 新舊葛藤과 政局動向」, 『국사관논총』 34, 1992.
도현철, 「정도전의 정치체제 구상과 재상정치론」, 『한국사학보』 9, 2000.
박경환, 「修己와 經世의 문제로 본 주자학의 사상사적 의의」, 『哲學研究』 92, 2004.
박도식, 「율곡 이이의 공납제(貢納制) 개혁안(改革案) 연구」, 『율곡사상연구』 16, 2008.
박현순, 「16~17세기 貢納制 운영의 변화」, 『韓國史論』 38, 1997.

- 薛錫圭, 「東岡 金宇顥의 政治哲學과 朋黨論의 展開」, 『남명학연구논총』 7, 1999.
-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敎選論과 貢舉制 구상」, 『한국사연구』 18, 2018.
- 宋準湜, 「東岡 金宇顥의 帝王敎育論」, 『남명학연구논총』 10, 2002.
- 尹絲淳, 「栗谷思想의 實學的 性格(上)」, 『韓國思想』 11, 1974.
- 尹絲淳, 「栗谷思想의 實學的 性格(上)」, 『韓國思想』 13, 1975.
- 이경동, 「조선후기 정치사상계의 栗谷 李珥 인식 변화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9.
- 이경식, 「朝鮮前期의 土地改革論議」, 『韓國史研究』 61-62, 1988.
- 이석규, 「동강 김우옹의 군주 중심의 경세론」, 『退溪學과 儒敎文化』 57, 2015.
- 이석규, 「동강 김우옹의 민본사상」, 『동아시아문화연구』 67, 2016.
- 李先敏, 「李珥의 更張論」, 『韓國史論』 18, 1988.
- 李成茂, 「朝鮮初期 奴婢의 從母法과 從父法」, 『歷史學報』 115, 1987.
- 이정철, 「栗谷 李珥의 貢物進上 개혁안의 영향과 한계」, 『한국사연구』 144, 2009.
- 이정철, 「이이 經世論의 성립과 그 정치적 배경」, 『史叢』 75, 2012.
- 李泰鎭, 「李珥의 軍政改革論」, 『韓國軍制史: 近世朝鮮前期篇』, 陸軍本部, 1968.
- 李泰鎭, 「士林派의 鄉約普及運動: 16세기의 經濟變動과 관련하여」, 『韓國文化』 4, 1983.
- 장승구, 「류성룡의 철학과 경세론 연구」, 『退溪學報』 134, 2013.
- 全炯澤, 「朝鮮後期 奴婢勞動에 있어서의 雇立制의 전개」, 『邊太燮博士 華甲紀念 史學論叢』, 삼영사, 1985.
- 정호훈, 「15~6세기 牧民書의 전개와 牧民學」, 『韓國思想史學』 36, 2010.
- 최선희, 「조선전기 유일 천거제의 운영과 그 의의」, 『朝鮮時代史學報』 56, 2011.
- 崔異敦, 「16세기 士林派의 薦舉制 강화운동」, 『韓國學報』 15-1, 1989.
- 韓相權, 「16-17세기 鄉約의 機構와 性格」, 『震檀學報』 58, 1984.

Abstract

Kim Woo-ong's Awareness of Social-reality and Statecraft Ideas

Lee, Kyung-dong

This study is designed to analyze the statecraft ideas of Kim Woo-ong, who was a representative scholar-official in the 16th century, so as to assess its historical meaning. Kim Woo-ong suggested the implementation of a timely reform to king Seon-jo, referring certain terms as 'Reformation(更張/更新)'. However, Kim Woo-ong's statecraft ideas emphasized King to self-cultivate his own virtue, as to edify and benefit the bureaucrats and the people. To reform the government system, Kim Woo-ong introduced certain ideas, such as recommendations of officials and reform of the local systems, in an attempt to induce a minister-led government system. For the people's welfare, Kim Woo-ong tried to reform the draft system. He suggested to replace the excessive military service personnels by hiring substitutes. Kim Woo-ong emphasized the reform of public schools, such as Sungkyunkwan and Hyanggyo, seeking to arrange an appropriate training system of officials. In relation to Hyang-yak, Kim Woo-ong emphasized more on the attitude and self cultivation than on the system reform. Kim Woo-ong's statecraft ideas can be compared to those of Yi Yi. While there are certain similarities between 2, over reform plans of draft system, education and

Hyangyak, there is also a clear difference between them. While Yi Yi weighed more on institutional reform, Kim Woo-ong emphasized more on self cultiv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assess Kim Woo-ong as a reformist who suggested a thorough social reform, based on close observation and awareness of social status then.

keywords

Kim Woo-ong(金宇顥), Seon-jo(宣祖), Reformation(更張), Statecraft Ideas(經世論)

